

한글 세계화의 필요성과 그 실증적 방법*

고제윤
도서출판 새한글 대표
(gojeyoun@naver.com)

본 연구는 문자 없는 민족에 한글 재창조를 통해 이들 민족의 문자를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민족 문화의 가장 위대한 콘텐츠 중 하나인 한글의 재창조를 통해 문자없는 민족에 문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한글 재창조를 통해 현재의 한글의 부족한 음가의 표현에 대한 일대일 대응규칙을 만들어 문자없는 민족의 문자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현재까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나 대략 5800-7000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중 2000여개의 언어는 문자가 없다. 그리고 그 2000여개의 민족 중 75%이상이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문자 없는 지역에 한글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한글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로는 부족하다. 우리 글자에는 없는 소리가 그들 민족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글을 보급하고자 하는 일부의 노력과는 그 근본부터 다르다. 현재의 한글로는 불완전하기에 이들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필요하기에 “훈민정음 재창조”가 필요한 것이며, 그 가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²⁾

이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문자를 보급하여 한글문자로 하나 되는 지구촌 구상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문자 없는 민족의 언어를 영원히 보존하여 귀중한 지구촌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일은 또한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인류역사에 기록될 한글로 지구촌 곳곳에 우리글이 퍼지게 할 수 있다.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 서문에서 밝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민족에 대한 인류애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3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의 로마문자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표기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아시아권 언어와 아프리카 언어의 로마자로의 문자화 대신에 한글문자로의 대체가능성과 유용성, 나아가 한글의 재창조를 통한 이들 문자의 한글문자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글세계화, 한글의 재창조

1. 서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한글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상 이보다 가슴 벅찬 문화 업적은 없다. 창조적이며, 과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한 것이 ‘훈민정음창제’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창제 당시에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했다고 하였다. 심지어 학의 울음소리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자라고 하였다. 동물의 소리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의 소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닥친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어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한글로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하

* 이 논문은 제2회 한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1)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 유석훈 고려대 교수의 ‘소수 언어의 죽음’

2) 한글의 재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영어발음의 한글표기 방법은 본인의 저서 “새한글”(도서출판 새한글, 2006)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 책을 700여명의 해외 선교사들과 각국 대사관에 전달하여 그 전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고 있다. 예를 들어 face와 pace를 구별해 표기하지 못하고, wife와 wipe를 표현해 내지 못한다. love와 rub 역시 영어에서는 분명 다른 소리인데도 구별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글자 뿐 아니라, 외국어를 한글로 표현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분명 한글은 소리글이다. 한글은 소리를 문자로 표현해내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너무 흔해져 버렸다. 그러니 한글 대신에 그 자리에 영어가 제 안방인양 차지하고 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소리글을 표방하지만 소리글의 기능을 못하는 언어다. 예를 들어 같은 a라는 글자를 놓고도 다양한 소리가 나고, 또 그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기호라는 것이 추가로 필요한 언어다. 달리 말하면 발음기호 없이는 자신들의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언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은 모든 이들이 문자화에 어려움이 없이 두루 널리 편하게 쓴다는 정신에 있다. 한글 창제 당시의 모든 이들은 한민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구촌 어디나 하나의 마을처럼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실시간 외국인과의 교류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인터넷의 중심에는 영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중심으로 한 로마 문자가 전 세계의 공용 언어 혹은 공용문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용 언어가 되는 데에 문제점이 아니라 공용문자가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을 영어 로마자로 표기한 글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산을 Pusan, Busan, PPusan, Fusan으로 표기를 하더라도 어느 하나

우리말의 발음과 일치한 표기는 아니다. 이런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는 이루 열거할 수 없다. 또한 영어 자체에서도 /ghoti/를 발음하면 /fish/와 똑 같다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로마자 표기는 그 문자 상의 완벽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영어는 로마자 표기이외에도 영어발음 기호를 새로 익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각 학자들에 의해 영어 발음기호가 다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thank/와 /this/의 /th/에 해당하는 발음기호를 다시 만들어 표기해야 만이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

이에 반해 우리글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학의 울음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쉽게도 현재의 한글은 그런 표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어의 f, z, th, w 등의 발음과 같은 글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민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글 표기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이며, 그 표기법을 영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언어와 문자

2.1 언어(말)와 문자(글)의 차이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말과 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문자를 로마자로 하였지 말을 영어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였다. 또한 새로운 문자로 변환하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2억 여 명의 인도네시아 인이라는 거대한 인구 구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까지 합치면 3억에 가까운 거대 인구가 문자표기를 통일한 역사적 사건을 간과할 수 없었던 데 있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문자를 바꾼 것이지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라는 언어가 있었고, 이들 언어를 로마자로 대체하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언어는 그대로 두고 문자를 바꾼 것이다.

문자를 바꾸는 일은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바꾸는 일은 간단치 않다. 아직까지 이민이나 합병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말을 대규모로 바꾼 일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강제적인 방법이나 소수의 이민자들에 의한 방법 말고는 말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그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말은 그 민족의 존재양식이요, 생활방식에 다름 아니다. 그 말을 바꾸려는 시도는 민족 자체의 말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말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또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자를 바꾸는 일 혹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한글 문자의 세계화’라고 할 것이지, ‘우리말과 글의 세계화’는 아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문자가 바뀌면 말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 보듯이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말은 바뀌지 않았다. 혹자는 ‘세계어’를 만들어 세계인이 공용어로 하자는 구상을 하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말을 바꾸는 데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일례로 우리말에서 ‘맛’을 표현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자. ‘달콤하다’, ‘달착지근하다’, ‘달다’, ‘달근하다’, ‘달콤 짹짹하다’등등 그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뉘앙스와 맛의 차이를 어찌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겠는가. ‘맛’에 대한 표현만 가지고도 사전 하나가 만들어질 만큼 우리글의 풍부한 언어표현을 어찌 다른 언어로 그 맛을 낼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각 민족은 그들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문자는 없어도 말은 있다. 그것이 문자와 말의 차이이다. 학자들은 보통 60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자가 6000여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언어가 존재하되 문자는 없는 민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며, 그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그러기에 그 말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 민족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의도와 같은 비역사적이고 비인도적 행위이다. 반면에 현존하는 언어를 문자화하는 일은 인류 유산인 언어를 영구히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문화적 역사적 타당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말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말의 구조가 우리말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영어의 전치사와 비슷한 우리말의 처소격 조사가 그렇고, 인도네시아어의 전치사가 그렇다. 우리말은 ‘학교로’라고 하여 ‘로’라는 말을 명사 뒤에 둔다. 하지만 영어는 ~로(to) 학교(school)라고 표현한다. 우리말과 정 반대의 순서다. 인도네시아어 역시 ~로(ke) 학교(sekolah)라고 표현하여 영어와 같은 어순을 따르고 있다.

문장에서 역시 그런 구조를 가진다. 우리말은 “나는(주어) 점심을(목적어) 먹는다(동사)”의 순서를 가지지만 영어는 “나는(I)-주어 먹는다(have)-동사 점심(lunch)-목적어”이라는 구조로 되어있다. 인도네시아어 역시 “나는(Saya)-주어 먹는다(makan)-동사 점심(siang)”이라는 구조로 되어서 우리말과 다르다.

또한 문법적 표현 역시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완료(have+P,P)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다.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있어 이 완료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말은 어순도 다르고, 표현 양식도 다양하다. 그러기에 언어는 민족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언어의 우월성을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자의 우월성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할 과제는 '한글 문자의 세계화'이지 '우리말의 세계화'는 아니다

2.2 세계 언어의 위기

언어도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멸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멸 위기 언어'란 더 이상 후손들이 해당 언어를 학습하지 않거나 또는 극소수 사용자들이 고령이어서 조만간 사망할 위기에 처한 언어를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다른 '포식 언어(killer language)'에 포위돼 있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언어의 최후의 사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어(死語)가 된다.

2.2.1 지구상 7000개 언어 중 2주에 1개꼴 사라져

현재까지 진행된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아직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역사상 문자의 발명을 통해 기록된 언어로 남아있는 경우

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세기 이후 발굴된 언어가 7000개 정도에 이를 뿐이다. 그러나 인류의 존재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수많은 언어 중에서 미처 이름도 갖지 못하고 사용자와 함께 아무 흔적도 없이 사멸된 언어들의 숫자는 이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측한다.³⁾

불행한 사실은 언어들 중에서 평균 2주에 1개 정도의 언어가 사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누군가의 생각을 나르는 언어였던 우비크, 쿠페노, 맵크스, 쿤월, 음바바람, 메로에, 콰브리아어 등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현재 속도로 계속 되다가는 금세기 말까지 전체의 90%에 달하는 언어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80%가 문자가 없는 아프리카 언어들이나,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등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지구상 언어 중 절반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사멸 위기 언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바벨 사업'(The Babel Initiative)은 대표적인 예다. 바벨 사업은 사멸 위기 언어의 자료를 수집해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⁴⁾

2.3 로마자 표기의 한계

이처럼 세계 언어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은 표기에 등장하는 로마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로마자는 그 자체의 표기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바 예를 들어 로마자를 사용하는 영어의 경우에도 표기의 문제점이 있다.

표음문자를 표방하는 로마자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발음으로 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ghoti라

3)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 유석훈 고려대 교수의 '소수 언어의 죽음'

4)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 유석훈 고려대 교수의 '소수 언어의 죽음'

는 글자는 fish로 읽을 수 있다는 극작가 버나드쇼의 일갈이 그 대표적 사례다. 버나드쇼가 ghoti라는 글자가 물고기 fish와 같다고 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먼저 gh는 tough에서의 gh처럼 f로 소리가 날 수 있고 /o/는 women에서처럼 /i/로 소리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ti/는 nation에서와 같이 sh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하였다. 로마자가 표음문자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비꼰 바가 있다.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영어가 이처럼 발음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역사적 사건은 18세기에 이루어진 대모음전이(Great Vowel Shift)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모음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서의 목적이 아니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대모음전이란 모음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발음이 바뀌게 된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혀의 위치에서 볼 때 낮은 자리에서 소리 나던 모음이 더 크게 소리 나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로 소리 나던 것이 /애/로 소리가 나거나 /예/로 소리나는 위치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apple의 a가 /아/로 소리 날 수도 있었겠지만 /애/로 소리가 바뀌어 버린 것이 그러한 예다.

이 이론에는 체인원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모음이 더 크고 강한 발음으로 이동되면 다른 모음이 그 자리로 올라오고 또 그 자리에 더 낮은 위치의 모음이 더 높은 위치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줄줄이 이동하면서 글자와 소리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

대모음전이(Great Vowel Shift)에 의해 모음은 일순간에 흐트러지게 되었고, 로마자를 근간으로 하는 영어발음을 사전의 발음기호 없이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을 로마자로 적어놓고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해야하는 우스

꽝스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아들고는 다시 한 번 어떻게 부르는지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표음문자를 표방하던 로마자가 일순간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발음기호 없이는 그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로마자 표기 문제는 비단 영어 자체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로마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표기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고근연 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할 때 이 이름을 영어로 Ko ken - yeon 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이름을 '코켄년'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다. 우리들 이름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기 어렵다. 박찬호 선수의 이름도 '첸호'정도로 발음하는 것을 야구 중계에서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소리글자를 표방하는 로마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언어다. 이런 반쪽짜리 문자로 표현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로마자 이외에 수 십 개의 발음기호가 다시 필요한 것이다. 로마 문자 이외에도 발음을 알기 위해서는 발음기호를 다시 배워야 하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

III. 말레이-인도네시아 표기를 통해본 언어의 문자화

3.1 말레이, 인도네시아 표기를 통해본 한글의 세계화

우리는 흔히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쉽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

다. '우수하다'라는 것은 사실 비교의 의미를 간직한 말이다. 비교의 대상이 있기에 우수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말 역시 논리적이며, 타당성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글이 왜 우수하고 과학적인지 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한글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몇 개의 글자를 되살리거나 만들어냄으로써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혹자는 몇 개의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영어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는 발음기호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발음기호는 로마자 이외에도 z, th에 해당하는 소리, ng에 해당하는 소리 ,l, 등등의 발음기호를 다시 익혀야 한다. 우리글에 몇 글자 덧붙이는 것에 비해서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로마자를 익힌 후에 다시 발음기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음 법칙에 의해 경음이 되거나 연음이 되는 등의 원칙을 또다시 배워야 한다. 이런 규칙은 사전으로 표기해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

지금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된 영어를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볼 때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인의 표준처럼 쓰이는 영어는 말의 우수성은 있을지라도 글자의 우수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 예를 들어 중국어의 발음을 익힐 때에도 로마자로만 전부 인식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발음기호를 다시 배워야 한다.

반면에 한글은 우리가 현재 쓰이고 있는 한글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창제 원리에 따른 문자를 재창조 한다면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쓰는 현재의 한글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의 글자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세계화된 시대에 한글을 재창조한다면 분명 로

마자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다. 논리적 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말의 자음과 모음의 일정한 배열 규칙과 발음원리 등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적용될 때 가능하다. 앞에서 제시한 영어발음을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과학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글은 또한 유용성, 즉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아무리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해도 쓸모가 없다면 존재 가치가 줄어든다. 새로 만든 한글 표기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은 유용성에 근거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자는 그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마차 기술의 진보와 같은 것이 문자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라에서의 이두나, 향찰표기 그리고 한자를 차용해서 쓰는 표기 등의 방법으로 우리말의 문자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필요에 따라 문자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하나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줄여서 인도네시아어로 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어를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출발은 1542년경으로 보고 있음 - 기존의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 표기(네덜란드어 중심, 말레이시아는 영어 중심으로)를 통해 문자의 변환을 추구했던 점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는 현재 로마자를 그 표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어는 기존에 있던 언어를 새로운 문자, 즉 로마자로 옮겨 적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는 원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교역의 필요에 의

해서 형성된 언어라는 점이다. 즉 약 400여 년 전에 당시의 교역상들의 언어가 오늘날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 형성되었다. 언어통합과 문자통합을 이루었고 오늘날의 거대국가를 형성한 과정이 언어와 문자가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기에 표본으로 삼았다.

인도네시아어를 로마자가 아닌 한글로 표기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고, 한글로 표기할 경우의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인도네시아어의 기본 지식

3.2.1 인도네시아어 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의 기본 글자

〈1972년에 새로 변경한 글자〉

- tj - c
- dj - j
- j - y
- ch - kh

〈인도네시아어〉

- Selamat pagi 아침 인사
- Selamat siang 점심인사
- Selamat sore 저녁인사

* 위의 글자를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로마자에 대한 인식으로 읽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Selamat [셀러맬]
- pagi [패기, 패지]
- sore [쏘얼]

〈실제 발음〉

- Selamat pagi
슬라말 빠기
- Selamat siang
슬라말 씨앙
- Selamat sore
슬라말 쏘레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써놓은 것은 달리 읽을 이유도 없이 한글 그대로 읽을 것이지만, 로마자로 표기된 글자를 읽는다면 다양한 발음이 나올 것이다. 로마자 표기만을 놓고서 본다면 영어에 의한 발음 원칙으로는 위에 적어 놓은 형식이 되겠지만, 독일어로 인식한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혹은 네덜란드어로 인식한 사람은 또 다른 소리를 낼 것이다. 반면에 한글로 적어놓은 것은 일점일획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예시한 한글의 우수성 중의 하나는 모음의 기본음으로 /-/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한글에서는 이 /-/음이 영어 발음을 바르게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글 표기의 기본 원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은 무조건 자음은 둘 이상이 겹치는 경우가 없는 데 영어에서는 세 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strike라는 단어를 스트라이크라고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즉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음에 /-/를 붙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한글은 여러개의 자음을 동시에 표기할 수도 있다. 그것을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다만 그런 글자를 쓸 경우 우리가 익숙한 문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

것은 글자꼴을 아름답게 만들면 해결될 일이다.

여하튼 한글의 모음에 존재하는 /-/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자다. 예를 들어 위에서 표기한 selamat은 원래 영어라면 slamat으로 해야 한다. 쓸데없는 문자 /e/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이 /-/음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표현해낼 방법이 로마자에는 없었기에 /e/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한글의 경우라면 이것은 간단히 /슬라말/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다. 그 소리를 표현하는 데 한글 표기의 원칙을 거슬리지 않고도 /-/음이 있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의 한글 표기〉

a - ᄃ	b - ㅃ	c - ㅈ, ㅊ
d - ㅌ	e - ㅡ, ㅣ	f - ㅍ
g - ㄱ	h - ㅎ	l - ㄹ
j - ㅈ	k - ㅋ	l - ㄹ르
m - ㅁ	n - ㄴ	o - ㅛ
p - ㅍ	(q) - ㅋ	r - ㄹ
s - ㅅ, ㅆ	t - ㅌ	u - ㅜ
(v) - ㅃ순경음	w - ㅎ	(x) - 이
y - ㅕ	(z) - 받침음	

위에서 괄호 표기된 글자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래어에서 들어온 말들을 표기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흔히 쓰이는 글자는 아니다.

3.2.2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본 로마자 표기의 문제점

영어에는 ㅈ, ㅊ, ㅌ등이 독립된 음으로 존재하

지 않고 발음 현상으로만 존재한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에서 /ㅈ/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car /칼/로 발음할 것을 /깎/로 발음했다고 다른 의미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변별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sky 라는 말을 /스카이/로 하건 /스카이/로 하건 그 의미의 차이는 없다. 다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들린다는 다분히 언어사용자의 심리적 기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경음(ㅈ, ㅊ, ㅌ)을 독립된 음으로 인식하지 않기에 이것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다. 이들 경음은 s뒤에 오는 경우의 음운현상으로서만 발음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따로 표기할 방법이 영어에는 없다는 말이다.

로마자를 빌려 쓴 인도네시아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고안한 것이 p를 ㅍ으로 하고, k를 ㅋ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어를 미국인들이 발음할 때에는 pagi를 [파기, 파기]정도로 발음하지 [빠기]로 발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이것을 한글로 표기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말에서는 ㅂ과 ㅍ이 표기로 존재하고 실제 그 음을 다른 음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와 한글로 표기했을 때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영어 발음	한글 발음
Apa kabar	아파 카발	아빠 까바르
(안녕하세요)		

영어 발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원어에 가까운 발음

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한글로 표현했을 때는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또한 kabar에서 보듯이 영어식 발음이라면 /카발/정도가 되겠지만 우리말은 /-/ 음가가 있으므로 해서 /까바르/라고 쓰고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영어 발음	한글 발음
terima kashi	테리마 캐쉬	뜨리마 까시
(감사합니다)	터뤄마 카쉬	

로마자로 표기하고 영어로 읽을 때와 한글로 표기하고 한글 발음을 들을 때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글로 쓴 표기가 현지 음에 훨씬 가깝다. 이런 이유는 영어 발음에서는 단어의 맨 앞에 오는 /t/가 /ㄷ/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k/가 단어의 맨 앞에서/ㄱ/으로 발음되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로마자로 위의 글자를 표기했다면 아마 ttrima kkashi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머리글자에 tt나 kk를 표기하는 단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다. ‘쌍’이라는 글자를 로마자로 쓰기 위해 Ssang라고 썼던 적이 있다. 로마자 s를 우리글 /ㅅ/으로 인식하고 /ㅅ/이니 s를 두 번 겹쳐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인도네시아어에서는 /ㄷ/을 표기하는 방법을 tt로 하는 대신에 t하나로 대신해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어는 로마자를 빌려서 글자를 만든 후에 다시 발음기호를 옆에 써 주어야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언뜻 보기에 로마자를 쓰면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소박한 기대일 뿐이고, 인도네시아어가 영어화되지도 않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어가 로마자를 빌려 쓰는 대신에 한글을 빌려 썼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는 점이다. 한글로 표기했을 때와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의 그 차이점을 아래의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자.

로마자	한글
Itu kambing, ini babi	이뚜 감빙,이니 바비
(저것은 염소이고, 이것은 돼지이다.)	
Ini orang Indonesia	이니 오랑 인도네시아
(이사람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Saya cinta pada mu	사야 찐따 빠다 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V.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문자화 과정

4.1 말레이-인도네시아의 문자화 과정

음성언어인 “말은 청각적인 의사소통의 체계이다. 이 음성언어를 시각적인 기호, 곧 글자로 나타내면 글(문자언어)이 된다. 말을 글로 나타내는 데 따르는 기준과 약속을 ‘표기법’이라 하며, 좁게는 ‘철자법’이라 하기도 한다.⁵⁾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통용되고 있

5) 리의도,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1999. P20

는 말레이어 표기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그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각각이 독립국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의 표기법을 제정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어 표기법(Pedoman Umum Ejaan Bahasa Malaysia: 1975),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어 표기법(Pedoman Umum Ejaan Bahasa Indonesia Yang Disempurnakan:1975)이 있으며, 그밖에도 외래어 표기법 등이 있다. 더불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의 언어에 대한 용어법, 즉 말레이시아어 용어법(Pedoman Umum Pembentukan Istilah Bahasa Malaysia: 1987)과 인도네시아어 용어법(Pedoman Umum Pembentukan Istilah:1975)을 각각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⁶⁾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어를 조어(祖語)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즉 공통의 조상언어로부터 분리되어 오늘날의 언어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철자법으로 완성되기까지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4.1.1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의 변천과정

특정 언어의 철자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음운론적 측면이다. 이는 음소를 문자로 나타내고 철자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둘째로 형태론적 측면이다. 이는 형태론적 단위의 표기를 위해 필요하다. 셋째로 통사론적 측면이다. 이는 발화를 구두점으로 표

기하는 데 필요하다.⁷⁾

말레이어의 철자법 역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표준철자법이 완성되었으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2 문자개혁

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역사상 세 번에 걸쳐 문자 개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문자 개혁은 고대 힌두·불교시대에 사용되었던 Pallawa 문자와 Nagiri 문자를 Arab 문자를 모방하여 만든 Jawi 문자로 개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Jawi 문자를 로마자로 개혁한 것이며, 세 번째는 로마자를 부분적으로 개혁한 것이다. 아랍문자를 표방한 초기의 힌두, 불교시대의 문자적 특성은 종교적 전래와 함께 병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는 로마자로 개혁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는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라는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서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4.1.3 Wilkinson 철자법

말레이어가 최초로 말레이제도에서 로마자로 사용된 것은 1521년 말루꾸 Maluku 군도의 띠도레 Tidore섬에 정박했던 스페인 선박 빅토리아 Victoria호의 수석 선원이었던 Pigafetta가 하선하여 그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던 무역 말레이어(음성언어, 즉 口語)- 보통 ‘피진어’로 통용 -를 배워

6) 안영호, “말레이어 철자법과 그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2003 PP 2~10

7) 리의도,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1999. P1

서 Itali-Melayu라는 어휘집을 작성한 데서 비롯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는 최고 最古의 말레이-유럽 Melayu-Eropah 어휘집이다. 보통 피진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중국식 발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상인들 간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말레이제도에서 사용되던 문자언어인 Jawi 문자를 로마자로 개혁하는 작업은 영국 식민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였다. 영국 식민정부는 철자법집행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집행위원인 Wilkinson에게 Jawi 문자를 로마자로 개혁·정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철자법을 Wilkinson 철자법으로 칭하고 당시 하교 철자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후에 Wilkinson 철자법은 말레이시아의 언어학자 Zainal 'Abidin(Za'ba)에 의해서 "Za'ba의 로마 Rumi 철자법"으로 불리었다.⁸⁾

4.1.4 van Ophuysen 철자법

van Ophuysen 철자법 역시 당시의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주관으로 1901년에 로마자로 개혁되어 플라유어회교본 Kitab Logat Melajoe에 수록됨으로써 그 효력을 보게 되었다. van Ophuysen은 Engku Nawawi의 도움으로 Jawi 문자를 로마자로 개혁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플라유 Melayu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던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이 비로소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van Ophuysen 철자법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들 철자법이 기존의 다양한 철자법을 하나로 통합 정리하는 역

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4.1.5 공화국 철자법(Soewandi 철자법)

공화국 철자법 Ejaan Republik은 Soewandi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위원회에 의해서 정립된 새로운 철자법이다. 이 철자법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van Ophuysen 철자법을 보완하고, 철자체계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철자법은 최종 검토를 끝내고 1947년 3월 19일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령으로 '공화국 철자법'이라는 명칭으로 선포되었으며, 그 당시에 철자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육·문화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Soewandi 철자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였다고 하지만 공화국 철자법에서도 f, v, x, y, z, sj 등의 문자를 다루는 데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주로 외래어에서 나타나는 문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⁹⁾

4.1.6 개정 철자법

개정 철자법 Ejaan Pembaharuan은 공화국 철자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1954년 제 2차 인도네시아 언어학자 대회 Kongres Bahasa Indonesia의 결의에 따라 1956년 인도네시아어 철자개정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개정 철자법 중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자음을 단자음으로 간소화시킨 것이다. 즉, 단일음소로 정립되었다.

8) 안영호, "말레이어 철자법과 그 변천에 관한 고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2003 PP2~10

9) Mustakim (1992), *Tanya Jawab Ejaan Bahasa Indonesia untuk Umum*, Jakarta: Penerbit PT Gramedia Pustaka Utama. P8

4.1.7 Melindo 철자법.

Melindo는 Melayu와 Indonesia의 약어이다. 따라서 Melindo 철자법은 Syed Nasir bin Ismail 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대표와 Slametmuljana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 간에 결성된 므라유어-인도네시아어 협력위원회 Panitia Kerja Sama Bahasa Melayu- Bahasa Indonesia가 1959년에 공동 철자법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관계로 무산되었다.

Melindo 철자법에서 제기된 문제는 개정 철자법에서 대두된 부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tjinta에서 나타나는 중자음 tj가 단일 음소 c로 대치되었고, njonja에서 나타나는 중자음 nj가 ⁿc로 대치되었으며, 개정 철자법에서는 ts와 ñ로 각각 대치되었다.¹⁰⁾

4.1.8 신철자법

신철자법 Ejaan Baru은 Melindo 철자법 위원회 사업의 연장으로써 그 위원회 역시 인도네시아의 언어·문학연구소 철자 위원회 Panitia Ejaan Lembaga Bahasa dan Kesusatraan와 말레이시아어 철자 위원회 Panitia Ejaan Bahasa Malaysia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새로운 개념의 철자법을:

- (1) 모든 음소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는 기술적인 관점.
- (2) 그 기술적인 상징이 인쇄술 또는 타자기에 적합한 실제적인 관점.

- (3) 언어현실과 언어 사용자 사회에 부합되는 학술적인 관점 등 몇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립시켰다.

그러나 수 차례에 걸쳐서 철자법을 개정했으나 일반 언어 사용자는 물론 언어학자간에도 견해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1959년 이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에 무산되어 왔던 철자법 통일안이 1967년 6월 27일에 합의되었고, 마침내 1975년 8월 31일에 양국에서 각각 공포되었다.

(1) 표준 말레이시아 철자법

표준 말레이시아어 철자법 Pedoman Umum Ejaan Bahasa Malaysia은 1972년 8월 16일에 말레이시아 교육부장관 Hussein Onn에 의하여 선포되었으며, 1975년 8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2) 표준 인도네시아 철자법.

표준 인도네시아 철자법 Ejaan Bahasa Indonesia yang Disempurnakan(EYD)이라 함은 1972년 8월 16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포하여 대통령령 제 57호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되었다. 그리고 1975년 8월 31일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장관에 의하여 확정 발표되었고, 그 이후 전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철자법(EYD)은 수정·보완되어 비로소 말레이시아와 함께 통일 철자법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¹¹⁾

10) Mustakim (1992), *Tanya Jawab Ejaan Bahasa Indonesia untuk Umum*, Jakarta: Penerbit PT Gramedia Pustaka Utama. P10

11) 안영호, "말레이어 철자법과 그 변천에 관한 고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2003 PP2~10

4.2 인도네시아어가 한글 표기를 했을 때 로마자에 비해 우월한 점

4.2.1 자음과 모음의 배열 규칙

인도네시아어는 모음과 자음이 번갈아 가면서 배열된다.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 필요한 음은 /-/음이 있으므로 해서 가능하다. 반면에 로마자를 쓰는 영어의 경우는 /-/음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음을 여러 개 겹치는 구조로서 해결했다. 예를 들어 str의 세 개의 자음을 겹쳐 사용하는 등이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어가 한글과 유사한 점은 자음과 모음의 사이좋은 배열에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Amir pergi ke sekolah dengan sepeda.

아미르 빠르기 꼬 스폴라 동안 스페다

(아미르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Amir - 아미르 - 사람이름

pergi -간다

ke ~로

sekolah 학교

dengan ~와 함께 ~을 타고

sepeda 자전거

위의 단어를 보면 자음 뒤에는 반드시 모음을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라는 단어의 경우 skolah 가 아니라 sekolah 라고 표기한 이유가 s 뒤의 모음 /e(-/를 표기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역시 speda가 아니라 sepeda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음운 규칙은 그대로 한글 표기로 옮겨서 적어도 현지 발음과 똑같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4.2.2 Saya(나) nonya의 글자에서 본 한글 표기의 우수성

인도네시아에서 나를 뜻하는 단어는 saya(사야)이고, nonya(노냐)는 소녀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원칙은 인도네시아어에서 nya는 한글 표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냐'를 표기하기 위해 /ㄴ/에 해당하는 /n/을 끌어와서 /ㅈ/에 해당하는 ya를 합성했다는 점이다. 한글 표기의 발음 원리와 너무도 일치함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음과 모음을 배열하여 /냐/를 표현하는 원리가 그렇고, 소리의 음가를 표현하는 원리도 한글의 창제원리와 너무도 닮아 있다. 마치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소리들을 글자로 만들어 표기하던 그 모습과 같다고 할 것이다.

4.2.3 로마자에 비해 한글이 우수한 점들

우리는 영어 발음 기호를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글에 없는 영어 발음들이 여럿 있었고, 그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 한글의 재창조를 설명하였다.

어떤 이들은 로마자로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어는 표음문자이니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사전 없이는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한 바다.

글자와 발음이 달라진 원인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한 '대모음전이'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여하하건 간에 로마자로 표기를 하면 다른 언어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글은 자음, 모음, 자음이 사이 좋게 배열되는 반면에 영어는 자음, 자음, 자음, 모음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바로 앞에서 표기할 글자들이 간혹 낯선 글자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특히 우리글을 표기하는 데 7종성(7가지 받침으로 표기 가능) 혹은 8종성(8가지 받침으로 표기 가능) 등이 되었던 것도 /-/가 있기에 가능했던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글이 가진 이 제한을 과감히 벗어야 만이 외국어를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음군은 최대한 허용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ㅅㅌㄷㄷ 세 개가 동시에 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외국어 표기에서 해당한다.

받침의 경우에도 허용을 최대한으로 하여 nts 등이 받침으로 표기하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어 points 라는 단어에서 nts 의 발음으로 ㄴㅌㅌ 를 허용하는 표기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받침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현재의 글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한 글자가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풀어쓰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ㅍ ㅅ ㄷ ㄴ ㅌ 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우리는 다시금 음가 없는 /o/을 덧붙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단어를 핀트 쓰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한글 창제 원리는 글자의 구성에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들 글자를 인식하는데 이런 표기는 실험을 해 본 결과 습관적으로 /-/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한글 표기처럼 위아래 나열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영어 발음 표기에서 /-/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 음을 사용하였다. 그 예는 seven에서 처럼 ven을 표기하는 데에는 자음을 받침으로 겹쳐 /ㅍ/으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ㅍ 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것은 영어 철자에서 보듯이 ven의 e가 있어서 /-/음을 덧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gl이 겹치는 경우에도 역시 /글/로 표기하는 것이 현지 발음에 더 가깝게 들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기서 영어 표기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 표기를 읽는 것도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에서는 흙 이라는 글자를 /혹/으로 읽지만 영어라면 흙 기 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글로 영어 표기를 할 때 우선은 한글 식 표기의 원칙을 따르되 자음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 4가지까지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받침으로 표기된 글자를 모두 받음하도록 한다는 원칙등을 통해 현재 한글의 불완전한 표기 방법을 개선할 수가 있다.

5.2 현재의 한글 표기의 문제점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의 문제점은 외래어에서 들어온, v와 z에서 발생한다. 이들 글자는 현재의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당연히 v에 해당하는 비순경음과 z에 해당하는 받치음을 살려 쓸 때 만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글의 재창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없는 소리를 표현해내는 문자를 새로이 찾아내고 이것을 완성해서 완벽한 글자로 만들어야 만이 세계화가 가

능하다. 비슷한 구조가 많다고 해서 한글의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한글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필요하다면 한글 고어도 되살려 쓰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발음기호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 음성학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발음기호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다른 발음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로마자를 배우고 다시 발음기호를 배워야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전에 표기된 발음기호는 국제음성학회(IPA)를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Jones와 같은 다른 음성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달리 발음기호를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사전마다 발음기호표기가 다른 이유도 어떤 학자들의 이론을 따랐느냐에 따라 같은 글자도 달리 표기되고 있다. 출판사마다 발음기호가 달리 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발음기호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발음기호 자체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음기호는 대표음을 표기하기 때문에 의미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달리 표기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s 뒤에 어는 p, t, k가 각각 우리말 ‘ㅍ, ㅌ, ㄱ’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제시된 발음기호 역시 주로 서양언어 위주의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동양권 언어들 특히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의 언어에서 존재하는 ‘ㅡ’음이나 ‘ㅍ, ㅌ, ㄱ’ 등의 경음에 대한 발음이 등한시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습관에 맞추어 ‘ㅡ’를 넣어서 발음하는 음가첨가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서양인들은 째짜잔, 땀따라, 땀 등의 발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인들이 흔히 Macdonald와 같은 발음을 ‘마구도나르드’처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발음표기의 부정확성

으로 인해 매번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글은 이미 그 우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증거 또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저의 문맹률은 그 증좌의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접속의 효율성에서도 또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00년간 로마제국과 함께 세계 문자를 지배해 온 로마자에 견주어도 한글은 손색이 없다. 로마제국은 비록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인 로마자는 오늘날 세계최고의 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가 강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제적 부국은 흥망성쇠를 통해 변화하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문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의 한자도 수 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 명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왕조의 멸망과 함께 쇠퇴를 거듭하는 여타의 상황과는 달리 문화는 그 영향이 자못 지대하다.

앞으로 세계의 문자는 로마자와 중국의 한자, 아랍권의 아랍문자 그리고 한글이 세계의 문자의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한글은 단연 우월하다. 과학적 창제 원리와 문자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익히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글이 이러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현재의 한글은 불완전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말과 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소리가 각 문화권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혼낼 때나 겨우 쓰이는 소리, 예를 들어 ‘스’하면서 빨아들이는 소리처럼 소리를 밖으로 내 뱉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빨아들이며 내는 소리도 존재한다. 그러한 소리까지 제대로 표현해내는 정확한 문자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된다면

한글이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사에 기여할 업적은 지대할 것이다.

5.3 우리말과 한글

흔히들 우리말이 우수하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실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말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글이 우수한 것이다. 말과 글을 동일시하여서 생각하는 오류이고, 세계의 어느 언어보다도 우리말이 우수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반면에 우리글 즉 한글은 우수하다. 그 우수하다는 기준은 과학적, 기술적 표기의 완성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자와 같이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그 표기의 과학적 우수성이 두드러지고, 현재와 같은 IT시대에 적합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은 5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간 중간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 쓰기도 하고, 이두나 향찰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대왕세종의 한글창제로 인해 과학적인 글자표기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문자표기의 변화는 각 민족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장 최근에는 약 100여 년 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 이들 언어는 그들의 언어를 문자표기를 위해 로마자를 차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4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현재 세계에는 약 6천 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중 약 10%는 문자가 없는 언어로 추정되고 있다. 한글은 그중 12번째로 많이 쓰이는 공용어이며,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만큼 한글이 사랑받는 문자임이 입증

된 셈이다. 더욱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대왕세종의 드라마와 함께 한글이 새롭게 뜨고 있다. 이 드라마가 한류바람을 타고 다시금 동남아로 수출이 된다면 또 다른 한류, 한글의 수출역시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한글로는 불가능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영어 발음을 한글로 가르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활용하면 wipe - wife, sink - think, four - pour를 구별하여 표기하고 또 그렇게 발음이 가능하다. 이런 발음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을 익히면 우리가 힘든 영어 발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한글이 영어 교육에 사용되는 방법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와 한글 제자 원리에 따른 글자 표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v에 맞는 표기는 ㅂ순경음, th에는 ㅅ순경음 (think)과 ㄷ순경음(this)으로 표기를 달리하며, f에 해당하는 발음표기는 ㅍ순경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더욱이 z는 1950년대까지 존재했던 받치음을 되살려 표기하고, 기타 모음에는 새로운 글자와 모음의 변용을 통해 표기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발음 표기 방법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글이 표현해 내지 못하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5천년 역사상 최대의 문화수출이 될 한글의 세계화 역시 먼 꿈은 아닐 것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한글은 세계 60개국에서 약 50여만 명의 사람이 배우고 있는 저력 있는 언어가 되고 있다.

VI. 한글재창조를 통한 한글 현대화 표기

6.1 한글 현대화 표기

6.1.1 현대화 표기 목적

- (1) 훈민정음 창제의 원래의 음과 몇 가지 음을 되살려 세계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한글로 표현한다.
- (2)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한다.
- (3) 세계 각국의 문자 없는 민족의 문자화를 이룩한다.
- (4) 국제 발음기호의 불일치로 인한 영어 및 외국어 발음의 혼란을 없앤다.

한때의 유행 글씨인 뽕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사실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였지만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수많은 신조어들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글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한글의 현대화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 해왔음이 사실이다. 전통은 과거의 순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에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순수한 혈통만을 내세우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전통이란 오늘날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유지 보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쯤에는 다시 한 번 우리 한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볼 시점에 이르렀다.

외국어가 급속히 우리의 문화생활에 침투하는 것

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슬기롭게 적용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글을 재창조를 통해 우리글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6.1.2 한글 현대화 표기의 필요성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큰 뜻은 “어리석은 백성이 그 뜻을 제대로 펴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당시의 연구에 의하면 한글은 우리 인간의 음성뿐만 아니라 물소리, 새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언중이 쓰는 언어는 극히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와 f 발음을 똑같이 ㅍ으로 발음하고, v와 b는 ㅂ으로 불완전한 발음을 하고 있다. 더구나 수 십 년 전 만해도 영어의 z 발음에 해당하는 반치음이 문헌상에도 그 음가로서 등장하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한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한글이 사장됨도 안타깝거니와 우리문자의 우수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오늘날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된 영어를 표기하고 발음하는데 있어서 우리글만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영어의 발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언어를 분명 우리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고 또 우리글이 영어 발음의 일대

일 표기의 방법이 있음을 아래의 원칙에 의한 발음 표기 방법을 제안한다.

-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어발음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데 새로 만든 글자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표기하지 못하는 기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자를 살려 쓰는 대신에 그 옆에 표기방법을 서술해놓았다. 이에 대한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1.3 한글 현대화 표기 목표 및 내용

한글 현대화 표기의 목표

한글의 현대화를 통해 세계 각 민족의 다양한 언어체계를 수용하는 통합된 문자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래로 다양한 언어학적 연구와 관찰을 통해 새로 정립한 언어의 문자화에 대한 명확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 세계 각국의 현지 언어에 적합한 변형된 한글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야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존재하여도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6.1.4 한글 현대화 추진 방법

- 1) 우선 한글과 각국의 발음에 관한 1대1 대응표를 구성하여 각 민족의 고유 음가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 각 민족의 다양한 언어구조에 따른 1대1의 대응 음가 표를 구성하여 이 음가를 근거로 한 각 민족만의 한글표기 방법을 먼저 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 2)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을 통해 각 민족의 언어를 표기하고 이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러한 음운론을 대조하여 한글을 통한 완벽한 표기법을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각 민족의 언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6.1.5 기대효과

한글의 재창조는 우선 외국어 습득에서 상당한 수월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한글 자체로서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글이 세계 언어가 되는데도 유용함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순 우리말 어휘를 되살려 쓸 수 있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외국어 습득의 어려움이 있다. 그 근본 이유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우리 발음과 외국어 발음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한글로 완벽하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친다면 외국어 습득, 특히 영어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각 민족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음가의 규정과 이에 대한 1대1 대응 음가 표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각 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음가 규정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문자화 작업은 세계 각지의 문자 없는 민족의 문자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글의 재창조화 작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지 언어

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녹취가 선행되고, 각 음가에 대한 한글의 1대1 대응체계가 완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6.1.6 활용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을 통해 외국어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게만 된다면 외국어 습득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사전에 나온 발음 표기를 배제하고 우리글로 그 발음을 전부 표현 가능케 되는 언어사전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날 만연한 외래어 표기도 상당부분 한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혼란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한글은 언중의 핵심 도구이기에 한글 역시 부단한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할 것이며, 이런 결과로 한글의 현대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런 외국어 표기를 한글로 대체함으로써 정직한 외래어 습득이 가능케 되고 영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한글의 재창조를 통한 세계 각지의 문자 없는 민족의 문자화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한글의 발음 체계와 소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문자 없는 민족의 문자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물 시안

1) 발음에 대한 개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쓰이는 발음기호는 IPA

(국제 음성학회)에서 인정하는 발음과 음성학자들의 개인적인 발음기호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어사전의 경우도 출판사별, 저자별로 다른 발음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비롯한 자판 입력의 불편함으로 인해 그 발음기호가 상당 부분 변형되어있다.

이에 따라 그 통일된 발음 기호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발음의 차이로 인해 지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이 일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실제 표기된 발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음을 기초로 하여 일상적으로 인정되는 발음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한글 표기 방법을 도출해 보았다.

영어 자음과 한글 자음의 대조표

영어의 발음 예시

/p/	plate	tapping	cap
/b/	blade	tabbing	cab
/t/	tame	seating	let
/d/	dame	seading	led
/ch/	chill	batches	rich
/j/	jill	badges	ridges
/k/	kale	baking	pick
/g/	gale	bagging	pig
/f/	fan	luffing	leaf
/v/	van	leaving	leave
/th/	think	thank	
/th/	thy	either	loathe
/s/	sink	racer	rice
/z/	zink	raser	rise
/sh/	shale	Asher	ruche
/dj/	---	azure	rouge
/m/	mail	summing	ram

/n/	nail	sunning	ran	/r/	루, 뤼
/ng/	---	singer	rang	/y/	여, 유
/l/	light	miller	tile	/w/	여린이음 (o 위에 줄긋기)
/r/	right	mirror	tire	/h/	ㅎ
/y/	yale				10)
/w/	wail				
/h/	hail				

2) 영어 자음과 한글 자음의 대조표

어 발음	한글발음 표기
/p/	ㅍ
/b/	ㅂ
/t/	ㅌ
/d/	ㄷ
/c/	ㅊ
/j/	ㅈ
/k/	ㅋ
/g/	ㄱ
/f/	ㅍ 순경음
/v/	ㅂ 순경음
/th/ think의 th	ㅌ 순경음
/th/ this의 발음 th	ㄷ 순경음
/s/	ㅌ, ㅍ
/z/	반치음
/sh/	쉬
/dj/	취
/m/	ㅁ
/n/	ㄴ
/ng/	ㅇ
/l/	쌍리음 ㄹㄹ

위에서 예시한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순경음(입술 가벼운 소리)을 살려 쓸 필요가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 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f의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프’를 길게 연속음으로 내는 것이다.

위의 발음표기 원칙을 적용하면 영어에 존재하는 발음은 거의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3) 발음기호와 실제 발음의 차이점 극복

우리가 발음기호로 표기된 것은 실제 발음과 상당히 다르다. 그것은 발음 표기의 원칙이 대표음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p발음을 생각해보면 piano의 경우 표이지만 cap의 경우는 비므로 소리가 난다.

한글표기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발음의 차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다. 또한 sky가 /스카이/가 아닌 /스카이/에 가깝게 발음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서 원음에 훨씬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 spy의 경우도 /스파이/가 아닌 /스빠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든 언어를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현 할 수 있다.

더구나 새로운 발음기호를 익히는데 드는 시간적 낭비를 줄여줌으로 해서 학습능률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0) 자세한 발음 활용과 용례는 본인의 저서 “새한글(도서출판 새한글, 2006) 참조.

4) 한글표기로 인한 유용성

1. 실제로 한글표기로 영어 발음을 표기해 놓고 보면 각각의 소리가 가진 특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다. p와 f가 다른 소리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 할 수 있으며, b와 v가 서로 다른 소리라는 것도 명확히 표현 가능하다.
2. 이러한 1대1 대응 원리를 다른 언어들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현재의 한글로 표현 가능한 언어들은 현재의 한글만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음가의 확장과 표현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술적 보안을 한다면 컴퓨터로 한글을 비롯한 모든 발음 표기가 가능케 된다. 이는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과학적 창제 원리에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러한 컴퓨터화된 작업은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자로 한글이 자리 매김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문자 없는 민족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규명도 가능할 것이다.

연음의 예문들 (컴퓨터상으로 글자표기 불가하기에 대략적 표기만 하였음)

What do you want to do?

할두유 윈트투두가 아닌 와러여 워너루

Where are you from?

워러여 표 순경음 + 롬

She is a girl 쉬 반치음+ 걸

strike 스트라이크라는 5음절이 아니라

스피루 ㅏ ㄴ 일음절 붙임글로 표기함

VII. 결론

문자 없는 민족에 한글을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을 재창조하여 영어발음을 표기하는 방법과 인도네시아어의 문자화 과정을 통해 한글의 재창조를 통한 언어의 문자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발음표기를 통해 진정으로 한글 표기가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세계 언어가 된 영어를 표본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글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한글로 표기했을 때와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의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한글 표기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였다. 이것은 물론 지금의 인도네시아어문자를 바꾸자는 의도 아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인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 이외에 3억 명의 한글을 쓰는 사람을 이웃으로 들 수 있는 엄청난 역사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과정과 검토가 필요한 일이므로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어를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외교관례상 옳은 일도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인도네시아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 표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부인키는 어렵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직도 수 백 민족이 글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민족에게 혹은, 부족들에게 우리글을 전파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을 그들에게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 고유의 말들을 한글로 기록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글자가 없는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멸하는 경우도 많다. 문자와 함께한 민족은 그 수명이 장구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 민족들이 지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문화 민족으로 성장해 가고 세계 중심의 선진문명국가가 되는 것도 이런 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한글의 세계화 전략은 가장 효율적이며, 문화적 전략이다. 우리나라가 간직한 가장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업적이 한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글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한글에 담긴 과학적 창제 원리를 적용한다면 세계의 모든 언어를 문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를 한글 재창조를 통해 일대일 대응의 원리로 활용하여 문자화 한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문화 민족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제윤, 『새한글』, 도서출판 새한글, 2006.
- 리의도,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 1999.
-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 안영호, 『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문법』, 삼보문화사 1978.
- 안영호, “인도네시아어의 차용어 연구 -Sanskrit어를 중심으로-”, 외대논문집 제1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 안영호, “Malay어의 차용어 연구 -Arab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외대논문집 제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5.
- 안영호, “Malay語의 Persia語 借用研究” 동남아연구 제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999.
- 안영호, “말레이語의 英語 借用 研究” 동남아연구 제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00.
- 안영호, “말레이어 철자법과 그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2003
- Mustakim (1992), *Tanya Jawab Ejaan Bahasa Indonesia untuk Umum*, Jakarta: Penerbit PT Gramedia Pustaka Utama.

The need for globalization of Hangeul and its actual method

Je-youn Go*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form the world community on one of the possibilities of globalization of Hangeul which was created by Korean King Sejong(1397-1450) in 1446. Also,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modernization of Hangeul.

To realize these goals, first, we examine Indonesian language romanized in 1901. From these data we found evidence that it is not sufficient to express Indonesian language in Roman alphabet.

Second, there are many languages which have not their own letters. And the languages are disappearing very rapidly in this world. So we have to record them in letters. To achieve this aim, Hangeul should be modernized. From modernizing Hangeul, we can also record disappearing languages.

We found that the languages which have not their letters can be written in Korean alphabet, Hangeul. It is important for our Koreans who have their own letter, Hangeul.

Key words: New Hangeul, globalization of Korean alphabet

* New Hangeul Books